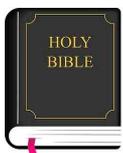




서른세번째 이야기

말씀이 곧 생명

[23 FTS 수료 후기]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 사역자 과정인 FTS로 초대받고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적으로 인도하신 코칭그룹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을 함께 수료한 다섯 분 모두에게도 수고했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FTS 과정을 통해 BEE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배우고 깨우친 것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BEE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기존 FT분들의 열정과 노고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학생으로 BEE에서 개설한 과목을 학습할 때는 예습을 통해 한 두 번 정독하고 과제 제출하며 과정들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나 FTS 과정을 통해 학습계획서와 PPT를 준비하면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니 완전히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학습 준비의 시간이 다섯 배, 열 배는 더 소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설교로 명망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 훈련할 때, 배우고 싶은 명설교 내용의 테이프들을 최소한 20번 이상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하는 신앙이 기반된, 살아있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려는 치열한 삶의 경험과 기록

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체험한 말씀 사역자는 세미나를 인도할 때 영향력과 생명력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FTS 과정은 마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BEE 사역자로 세워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서 겸손한 자세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게으름을 경계하고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이겨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김학수 집사]



수원 온누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공동체 사역으로는 ‘일대일 양육자’, 사회선교부 경제정의 팀의 ‘119부채 프로젝트 담당사’로, 개인적으로 ‘새터민 사역’ ‘노숙자 사역’에 참여와 소그룹 모임인 ‘킹덤빌더 학교’를 6년 이상 리더로서 인도해 오고 있다. 갈렙선교학교를 통해 인도받은 BEE 사역을 통해 세계 열방 복음화에 참여하고자 한다.



익숙함을 떠나서



지역 교회에서 성경과 관련된 모임을 수년간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모임을 일으키던 중에, 어느덧 점점 소진되어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어떤 형태로든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BEE 과정을 알게 되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식 모임에만 익숙해 있던 저는 BEE의 세미나 방식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긴 했지만,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신앙과 삶에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제게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BEE 과목들을 하나씩 수강해 가면서 모임을 통해 어떤 공급과 위로를 받고 있던 제게 FTS 훈련 대상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BEE’라는 단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까지 하게 하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FTS 훈련은 역시 다른 세미나들에 비해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토론식 세미나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준비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 강의식 인도에만 익숙하던 저였기에, 학생들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학습서의 방향성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세미나 방식과 그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FTS 훈련을 함께하게 된 형제자매의 삶과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미나 인도 연습이긴 했지만, 각자가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인도하는 세미나에 함께하며, 말씀과 신앙과 삶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매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세미나식 인도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세미나를 통해 그리고 함께할 수 있었던 훌륭한 형제자매를 통해 많이 위도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FTS를 마치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지만,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저마다의 모양대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글쓴이 한봉석 집사]



지역교회를 섬기며 수년간 성경 모임을 인도해 오고 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공동체가 즐거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정리 및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안이나 야만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12월 9일(토) 23-1 OBA 수료식이 있습니다. OBA 과정을 통해 믿음의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말씀에 헌신하는 귀한 OBA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3. 12월 11일(월) 오후 6:30 두란노 홀에서 Blessing BEE Korea[BBK]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주시는 비전을 기대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에 함께해요!!